

**BNK플러스알파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펀드코드 : DK621]**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b> 등을 감안하여 <b>5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b>60%이상</b> 을 <b>국내 채권</b> 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b>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NK플러스알파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잔존만기가 짧은 기업어음, 단기사채, 회사채 등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매경BP1년지수 70% + Call 30%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15% 이내	0.26	0.16	0.25	0.2637	42	70	100	163	3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40	0.30	0.34	0.4000	41	84	129	225	50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075% 이내	0.18	0.08	0.24	0.1837	26	46	67	111	2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25	0.15	0.25	0.2537	26	53	82	143	323
	(주)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b>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b>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b>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1.09 ~ 22.11.08	-	-	-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21-10-05	1.18				1.20				
비교지수(%)	2021-10-05	0.54				0.60					

수익률 변동성(%)	2021-10-05	0.53					0.52																																										
<p>(주) 비교지수: 매경BP1년지수 70% + Call 3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운용전문 인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성명</th> <th rowspan="3">생년</th> <th rowspan="3">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colspan="4">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th> <th rowspan="3">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th> </tr> <tr> <th rowspan="2">집합투자 기구 수</th> <th rowspan="2">운용 규모</th> <th colspan="2">운용역</th> <th colspan="2">운용사</th> </tr> <tr>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h>최근1년</th> <th>최근2년</th> </tr> </thead> <tbody> <tr> <td>문성호</td> <td>1977</td> <td>책임 (수석매니저)</td> <td>15개</td> <td>6,157억</td> <td>-2.14</td> <td>0.34</td> <td>0.01</td> <td>0.34</td> <td>15.9년</td> </tr> <tr> <td>김재욱</td> <td>1972</td> <td>부책임 (상무대우)</td> <td>11개</td> <td>3,801억</td> <td>0.10</td> <td>-</td> <td>0.01</td> <td>0.34</td> <td>19.3년</td> </tr> </tbody> </table>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문성호	1977	책임 (수석매니저)	15개	6,157억	-2.14	0.34	0.01	0.34	15.9년	김재욱	1972	부책임 (상무대우)	11개	3,801억	0.10	-	0.01	0.34	19.3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문성호	1977	책임 (수석매니저)	15개	6,157억	-2.14	0.34	0.01	0.34	15.9년																																								
김재욱	1972	부책임 (상무대우)	11개	3,801억	0.10	-	0.01	0.34	19.3년																																								
<p>[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문성호- 0개 0억 / 김재욱- 0개 0억]                  (주)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p>투자자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주요투자 위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원본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 </tr> <tr> <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 <td>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금리변동위험</td> <td>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신용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단기사채, 기업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단기사채, 기업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회사채, 단기사채, 기업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b>유동화증권 투자위험</b>	유동화증권에는 다양한 거래참여자가 존재하며, 발행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거래참여자의 경우에도 부도 발생 또는 신용도 하락이 유동화증권의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증권발행사의 재원확보계획이 유동화증권의 만기일 전에 달성되지 못할 경우 원리금 회수 지연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환매연기위험</b>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11.매입·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b>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b>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b>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	
<b>매입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b>2영업일(D+1)</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li>·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b>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ul>		
<b>환매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b>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3영업일(D+2)</b>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li> <li>·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b>4영업일(D+3)</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4영업일(D+3)</b>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li> </ul>		
<b>환매수수료</b>	<b>170일 미만 : 이익금의 70%</b>		
<b>기준가격</b>	<b>산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b>공시장소</b>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b>과세</b>	<b>구분</b>	<b>과세의 주요내용</b>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b>수익자</b>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b>전환절차 및 방법</b>	해당사항 없음		
<b>집합투자업자</b>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b>모집기간</b>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 총액</b>	10조좌
<b>효력발생일</b>	<b>2022년 11월 23일</b>	<b>존속기간</b>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 기구의 종류</b>	<b>종류(Class)</b>		<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
	<b>판매 수수료</b>	<b>수수료 선취(A)</b>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수수료 후취(B)</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수수료</b>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판매 경로	미징구(C)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b>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및 기관투자자(F)	펀드 및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구분 기준>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